

濟州島 民謠 研究의 成果와 課題

변성구*

I. 서론

제주도 민요는 언어학적, 민속학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가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¹⁾.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제주도 민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연구 방향 설정, 연구 결과의 교육적 활용 등 민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민요는 기능·가락·사설의 3요소에 의해 연행되고 전승되어 온 구비문학의 한 갈래인 만큼 민속학적·음악적·문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주도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사

1) 제주도 민요를 채록한 대표적인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68.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9-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1·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2.

문화방송편,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민요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이 세 분야의 연구가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제주도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척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민속학적·문학적인 연구를 중점으로 다루면서 음악적 연구 업적을 곁들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도 민요 연구에 대한 서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지난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민요의 경우 좌혜경이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²⁾를 통해 1차적인 서지 작업이 이루어져 제주도 민요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좌혜경은 제주도 민요 연구 자료를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첫째 시기로 잡고, 그 다음부터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구분하여 93년까지의 자료를 해제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문학사의 전개과정과 제주도 민요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기로 편의상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하였다.

제1기: 192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민요 연구

제2기: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민요 연구

제3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민요 연구

제4기: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대까지 민요 연구

1920년대 이후 우리 민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당시에 불리던 민요를 적극 조사, 수집하는 한편 민요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일어났다³⁾. 30년대에 高橋亨에 의해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어 김소운, 임화, 방종현 등의 민요 자료집에 제주도 민요가 조사되어 수록되었다. 해방 이후 50년대 중반부터 제주출신 학자들에 의해 제주도 민요 조사와 자료집이 발간되면서 제주도 민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 발간, 70년대부터 80년대

2)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 <민요론집> 3, 민요학회, 1994.

3) 1920년대 시인들의 민요시 운동과 함께 우리 민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인 학자 市山盛雄의 <조선민요의 연구>(동경: 판본서점, 1927)에는 조선민요에 대한 14편의 논평적인 글이 실려 있는데, 조선인 학자로는 최남선(조선민요의 개관), 이광수(민요에 나타난 조선민족성), 이은상(청상민요 소고)의 글이 실려있다. 좌혜경, “한국민요학논제해제”. <민요시학연구>(국학자료원, 1996), 352쪽.

말까지 김영돈의 “제주도 노동요 연구”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 대계>(9-1·2·3) 발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MBC의 <한국민요대전> 편찬과 조영배의 <제주도노동요연구>, 좌혜경의 <민요시학연구>,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하)> 등은 제주도 민요 연구를 한 단계 승화시킨 풍성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시기별로 제주도 민요를 연구한 논저를 대상으로 삼아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미흡하나마 점검해보고자 한다. 주요 저작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개별 논문까지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자료 분석은 좌혜경의 문헌 해제와 필자가 보완한 자료 135편(저서·자료집 30권과 논문 105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빠뜨린 것이 있다면 차후에 보완하기로 한다. 아울러 한국민요의 사적 전개와 연계를 지어 제주민요의 흐름과 그 특징을 함께 살펴야 함에도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면서 본고에서는 제주도 민요 자료만을 그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1. 192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민요 연구

일제 강점기 제주도 민요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당시 일제 식민지하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들 민요 조사 및 논의는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인 학자가 앞장서서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요를 조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민족의식 내지는 민중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한 민요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졌지만⁴⁾ 자료 수집 차원에 머물렀거나 감상하는 수준에 그쳐 민요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 민요 사설에 구사된 제주방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인 또는

4) 박경수,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요론집>제4호(민요학회, 1995), 324쪽.

본토 학자들의 작업에 크나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제주도 민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싹을 틔우기 전 단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시기 제주도 민요 연구는 자료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민요의 한 지역으로서 조사 수록되었을 뿐, 제주도 민요로서의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만을 수록한 것으로는 고교형의 <濟州島の民謠>가 보일 뿐이다.

1920년대부터 해방 이전에 이루어진 제주도 민요 관련 자료를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단, 일부 저서(③,④,⑨)는 자료수집 시점에 초점을 두어 여기에 배열하였다.

- ①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201(京城: 朝鮮總督府, 1932)
- ②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女", <朝鮮>202(京城: 朝鮮總督府, 1932)
- ③ 高橋亨, <濟州島の民謠(동방학기요 제2집)>(東京: 천리대학 동양학연구소, 1968)
- ④ 조선총독부 조사, <韓國民謠集VI>(서울: 집문당, 1981)
- ⑤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東京: 第一書房, 1933)
- ⑥ 金岸曙外, "제 고장서 듣는 民謠 情調: 김능인 - 제주도의 멜로디 이어도", <三千里>(서울: 삼천리사, 1939), 8월호.
- ⑦ 康奉玉, "濟州島の 民謠 五十首", <개벽>32, 부록, pp.39-48.
- ⑧ 林和 편저. 이재욱 해제, <朝鮮民謠選>(京城: 學藝社, 1939). 265면.
- ⑨ 金思燁·崔常壽·方鐘鉉 공편. <朝鮮民謠集成>(서울: 正音社, 1948)

가. 민요 조사 및 자료집 발간

(1)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謠>(③) 발간

일제 강점기하 제주도 민요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일본인 高橋亨이다. 高橋亨은 경성제대에 근무하면서 1929년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여 제주 민요를 조사하고 연구 논문과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濟州島の民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자료집은 1968년에 발간되었으나, 수록된 자료는 본래 高橋亨이 1932~1937년까지 수집한 것이라 한다. 이 책은 제주도 민요를 다루기에 앞서 조선민요

의 역사, 연구와 채집의 역사, 조선민요의 특색 등 총설을 다루고 있다. 본론 제1장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명칭, 풍속, 인심, 진상을 개관하여 민요가 존재하는 역사적 지리적인 특성에 의한 생성배경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섬 민요 채집의 역사와 그 민요의 형태를 개괄하고,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요를 분류하고, 직접 각편을 나열하여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高橋亨은 이 책에서 민요의 분류와 그 형식에 대한 고찰을 주로 하고 있다. 그는 분류 기준의 하나로써 여성창자를 들고, 3장에서 섬의 여자 향을 따로 설정하여 涼太歌, 網巾歌, 海女歌, 身世歌, 情歌, 兩班의 歌에 나타나는 여성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 맷돌 작업이나 방아 작업에서 부르는 노래를 杵磨謠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涼太歌, 網巾歌, 海女歌의 의미 단락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가를, 7장에서는 노동요로서 농요인 踏田謠, 除草謠, 打麥謠를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한편 제8장에서는 서울을 향한 섬 여자들의 심정을 노래한 것을 京城의 노래에 묶어서, 그리고 제9장에서는 뱃노래인 船謠를 살피고 있다. 제10장에서는 土役謠와 埋葬謠를, 제11장에서는 進上謠를 아울러 살피고 있다.⁵⁾

(2) 김소운의 <朝鮮口傳民謠集>(⑤) 발간

김소운은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독자들이 투고한 민요의 기사를 수집하여 <朝鮮口傳民謠集>을 발간하였다. 국판 700쪽의 방대한 저술로 2,370수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도 민요는 전라남도 편에 12수가 실려있을 뿐이다. 자장가 1편, 자는방에 1편, 파랑새 1편, 여대복송 1편, 첨마첨마 1편, 도리강산 1편, 속요 2편은 제보자가 추자면 신양리 양태교라고 되어있는데⁶⁾, 추자도에서 수집한 것이라서 제주도 민요와는 상당히 다르며, 릿기 1편, 수요 2편, 자장가 1편은 제주도 신우면 금덕리 강희선 제보라고 되어 있다.

5) 좌혜경, 앞의 글, 263쪽.

6) 양태교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출신으로 당시 전남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추자도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제주도민요를 수집하여 매일신보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97호, 제주도교육청, 1997. 9. 25. 참조.

11 (3) 임화의 <朝鮮民謠選> (8) 발간

임화는 <朝鮮民謠選>에서 전국의 민요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서정가, 결혼가정에 관한 가요, 사친가, 자탄가, 서경가, 풍유가, 노동가요, 잡요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주도 민요는 특별부록으로 처리하였다. 제주도 민요는 방앳노래와 가랫노래, 踏田歌, 打穀歌, 除草歌, 海女歌, 船歌, 埋葬歌, 자장歌 등이 있다. 특히 방앳노래와 가랫노래는 의미단락을 한 각편으로 삼아 미시적인 각편 구분을 하고 있으며, 타곡가는 서귀포, 제초가는 모슬포, 자장가는 서귀포라는 수집지역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원가사 표기를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보자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민요를 제법 많은 분량을 수집했다. 특히 본토의 민요에 비해서 그 특이성을 인정한 바 분류를 시도하지 않고 따로 부록으로 처리한 것이 이해가 된다. 자료들은 지금도 전해지는 노래가 대부분 엮보여 전승의 견인력을 실감케 한다. 이재옥의 논문 <조선민요서설>에는 제주도 민요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전혀 없다. 좌혜경은 제주도 민요의 수집과 분류는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⁷⁾

(4) 金思燁·崔常壽·方鐘鉉 공저 <朝鮮民謠集成> (9) 발간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모아서 1948년에 펴낸 것으로 제주도 민요편을 독립하여 지역적 분류를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제주도 자료들은 방중현이 대부분 수집한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 민요인 경우는 육지의 그것과는 시형, 어휘, 어조, 정감 등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아 따로 분류했다"고 밝히고는 제3편에 수록하였다. 제주도 민요는 가능한 한 창자의 발음에 가깝게 기록하려고 했고, 특수한 방언인 경우는 간간이 加註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분류 없이 의미단락으로 나열하고 있다.⁸⁾

(5) 임동권 편저의 <韓國民謠集> VI (4) 발간

<韓國民謠集> VI 은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지배 정책자료의 수집을 목적으

7) 좌혜경, 앞의 글, 266쪽.

8) 위의 글.

로 전국의 민요를 조사⁹⁾하여 출판코자 정리하다가 남아 있는 것을 찾아서 발간한 자료집이다. 제주도에 관한 조사는 전라남도 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청 주도로 수집해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사된 것이기에 현장성이 떨어진다. 제주도 관련 자료는 1912년도 분 중에 제주공립학교 수집의 타곡가와 토역가, 정의군에서 수집한 태평가, 타맥가 등은 제목이 붙어 있고 대정군에서 수집한 노래에는 제목이 없다. 또한 여기에 실린 자료는 제주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외지 학자들의 제주도 민요 연구

초창기 제주도 민요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연구는 외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高橋亨은 제주도 민요 조사 작업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에서도 초창기 제주도 민요 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朝鮮의 民謠”(①)에서 제주도는 조선민요의 寶庫이며, 아직도 옛날의 풍속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남녀관계, 의복제도, 가옥의 구조, 무속의례, 사당신 등이 구태연하게 남아있는 점에서 고대의 민요를 대부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女”(②)에서 제주도의 민요 船歌, 양태가, 망건가, 해녀가를 소개하고, 특히 뱃돌방 아노래 중에서 그 뜻이 깊고 절창인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다. 여성들의 시집살이에 노래 중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을 그린 것과, 첩에 관한 것 등 우울한 노래(陰의 노래)들과, 양반지향의 노래나 京城지향,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인 밝은 노래(陽의 노래)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김능인은 제주도 민요의 특색은 “흠냄새가 나고 자연생장적이다”라고 하고, 특히 여성요는 아낙들의 피와 눈물이 맺혀있는 노래라고 하였다. 또한 이어도 후렴과 둥그대당실로 시작되는 오돌또기로 볼 수 있는 노래 약간을 언급하였고(⑥), 강봉옥은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⑦)에서 부제 ‘뱃돌가는 女子들의 주고받

9) 일제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전국의 민요를 조사했는데, 1912년 <俚謠俚諺及通俗的讀物等調査>를 1부로 하고, 1933년의 <民謠調査>와 1935년 <郷土民謠及舞踊>조사를 제2부로 하여 출판코자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좌혜경, 앞의 글, 263쪽. 박경수, 앞의 글, 327쪽. 2)번 각주 참조.

는 노래'가 보여주듯이 땃돌노래 50수를 소개하고 감상하였다. 땃돌노래의 가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민요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편을 나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를 사용하여 어석을 달고 있다.

일제 강점기하의 제주도 민요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당시 조선총독부나 高橋亨 등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식민지 지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략적 조사였다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金素雲, 林和 등 문화운동적 차원에서 민요 조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민요의 한 지역으로서 제주도 민요가 조사되었지만, 제주도 민요의 특이성을 처음으로 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전되어온 당시 제주도 민요를 처음으로 문헌에 수록함으로써 당시 제주도 민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루어진 제주도 민요 조사와 연구는 외지 학자들에 의해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고, 민요의 사설만 채록하는 정도여서 민요 구연의 다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¹⁰⁾는 한계가 또한 있다. 아울러 제주도 민요의 표기에 있어서 제주어로 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반감시킨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2.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민요 연구

제주도 민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아무래도 해방 이후로 볼 수 있다¹¹⁾. 해방 이후는 남북 분단과 정치 세력의 좌우 분열로 문단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 문인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겪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던 시기이다. 해방과 더불어 제주도는 4·3의 아픔과 6·25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해 가는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주도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1952년 제주대학의 개교와 동시에 국어국문학과 의 창설은 제주도 민요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50년대 중반부터 젊은 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0) 박경수, 앞의 글, 328쪽.

11) 위의 글.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논저가 속속 발간되고 있다. 특히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말대까지는 제주 출신 학자들에 의해 제주도 민요 연구의 싹을 틔운 시기로 오늘날 제주도 민요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당시 향토사학자인 홍정표, 민속학자인 진성기, 김영돈 등은 제주도 민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전도를 직접 발로 뛰면서 민요를 수집하였으며, 나름대로 자료집과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발간된 제주도 민요 관련 자료집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崔永日, "濟州島의 民謠", <崇實大學報>2(서울: 崇實大, 1956)
- ②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 창간호(제주: 제주대 학도호국단, 1957)
- ③ 최학선,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48(서울: 現代文學社, 1958)
- ④ 양홍식·오태용 편, <제주향토기>(프린트관, 1958)
- ⑤ 金永三 編, 한용주 蒐集, <濟州民謠集>(서울: 중앙문화사, 1958). 188면.
- ⑥ 秦聖麒, <濟州島民謠(1집)>(제주: 희망프린트사, 1958)
- ⑦ 진성기, <濟州島民謠(2집)>(제주: 중앙미술사 프린트부, 1958)
- ⑧ 진성기, <濟州島民謠(3집)>(제주: 성문프린트사, 1958)
- ⑨ 최학선,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48(현대문학사, 1958)
- ⑩ 진성기, <오돌또기>(제주: 우생출판사, 1960)
- ⑪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 ⑫ 玄容駿, "濟州島 民謠에서 본 島民의 生活相", <鄉林2>(제주: 제주상고, 1960)
- ⑬ 진성기, "濟州 民謠에 보이는 女人像: 特히 海女노래를 中心으로", <제대학보>3(제주대, 1960)
- ⑭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있어서의 比喻法修辭", <국어국문학>22(서울: 국어국문학회, 1960)
- ⑮ 김영돈, "제주도 민요론(1)-(4), 땃돌방아노래편", <현대문학>84-87(서울: 현

대문학사, 1961-62)

- ①⑥ 姜武重, "濟州島 民謠에서 느끼는 것", <제대학보(10주년 기념호)>(제주대, 1962)
- ①⑦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서 본 어머니의 사랑", <제주도>2(제주: 제주도, 1962)
- ①⑧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꿈", <제주도>4(제주: 제주도, 1962)
- ①⑨ 洪貞杓, <濟州島 民謠 解説>(서울: 省文社, 1963). 300면.
- ②⑩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종류상의 특색", <제주도>9(제주: 제주도, 1963)
- ②⑪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특색"(제주대 국어국문학 연구실, 1964)
- ②⑫ 김영돈, "제주민요에서의 불패의 신념", <국어국문학> 27(국어국문학회, 1964)
- ②⑬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분포와 風多", <국문학보>2(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64)
- ②⑭ 김영돈, "제주민요와 현실성", <제주도>15(제주: 제주도, 1964)
- ②⑮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현실성", <濟州新聞>(제주: 제주신문사, 1964), 4월 2일자.
- ②⑯ 이봉준, "오돌또기 新考", <濟州新聞>(제주: 제주신문사, 1964), 4월 30일자.
- ②⑰ 임헌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1)", <제주도>22(제주: 제주도, 1965)
- ②⑱ 좌영조, "한국민요의 연구: 제주도 민요를 중심으로"(고려대 대학원, 1965)
- ②⑲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서울: 일조각, 1965)
- ③⑩ 임헌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2)", <제주도>23(제주: 제주도, 1966)
- ③⑪ 김영돈, "속담과 민요의 교류: 제주도 속담과 민요를 중심으로", <제주도> 27(제주: 제주도, 1966)
- ③⑫ 임헌도, "제주도 민요의 유별적 고찰(1)", <제주도>31(제주: 제주도, 1967)
- ③⑬ 임헌도, "제주도 민요의 유별적 고찰(3)", <제주도>34(제주: 제주도, 1968)
- ③⑭ 김영돈, "탐라의 자산 민요", <제주도>39(제주: 제주도, 1968)

가. 민요 조사 및 자료집 발간

(1) 양홍식·오태용의 <제주향토가>(④) 발간

이 책은 제주 출신인 두 편자가 향토 제주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판의 역할을 목적으로 만든 등사본 책자이다. 제7장 '풍부한 민요' 항에 제주도 민요가 수록되어 있는데, 방아노래 5편과 맷돌노래 8편, 김매는 노래 6편, 자장가 6편, 해녀가 9편, 고기잡는 노래(어선가) 5편, 농부가 2편, 타작노래(탈곡가) 2편, 밭밟는 소리(답전가) 4편, 상여소리(장송가) 3편, 달고질노래 5편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가마귀, 우렁, 꿩, 매미잡이 노래인 동요들과 방아타령, 질군악, 오돌또기, 사랑가 등의 창민요와 시집살이요, 장기가, 고대왕가, 기괴문답가, 담배가, 명물타령, 양태와 불미(불매)노래, 과부의 노래인 12월가 등을 실고 있다.

(2) 金永三의 <濟州民謠集>(⑤) 발간

한용주가 수집하고 김영삼이 편찬한 민요자료집이다. 기능별로 노래를 상위분류하고, 분류에 따라서 하위분류로 노래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제목은 고정되어 불려지는 것은 그대로 취하고, 그 외의 것은 맨 앞 구절이나 혹은 특정대목을 따서 편자가 자의적으로 붙이고 있다. '오돌또기'를 악보와 더불어서 실고 있으며, 가능한 대로 제주어 표기를 살리려고 했으나, [.] (아래 아) 표기나 고어 표기를 하지 않았고, 노래에 대한 조사지역이나 제보자, 구연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있지 않다. 방언이나 낱말의 풀이 중 여러 학설이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만을 주를 달아 노래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제주민요의 형식상의 특징은 4.5조 혹은 3.4조이며 내용상의 특성을 "허위와 안일의 육지부의 민요에 비해서 남국적인 해양풍취에서 벗어지는 섬의 독특성, 격정적이고 낭만적이며, 배타적이며 독선적이기까지 하고 자립적이며 진취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몽고나 외국의 민요와의 교섭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 자료집은 그 분류가 지금까지의 자료집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나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 특히 노동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 비기능적인 항목설정으로서 시집살이나, 첩요, 팔자, 과부노래의 설정은 2차적인 분류로 택할 만한 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 발간

진성기는 제주도 민속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에서 대단한 작업을 보여준 대표적인 민속학자라 할 만하다¹²⁾. 그는 제주섬을 ‘민요의 섬’이라고 자각하고, 대학시절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요> 1·2·3집을 펴내고 있다. (⑥, ⑦, ⑧)

제1집에는 300여수의 민요를 매수마다 번호를 붙여서 수를 구분하고 가창자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였다. 특히 제주방언이 일률적인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중아래 아음(゚)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제보자나 수집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가창자의 노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육지부의 독자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방언 등은 낱말풀이를 해놓고 있다.

진성기는 이어서 800여수의 자료를 묶어 제2집을 펴내고 있다. 대부분의 체제가 제1집과 마찬가지로 제1집에서 맺돌노래로 묶었던 것을 그 정서를 중시하여 ‘과부노래’, ‘시집살이노래’, ‘원정노래’, ‘팔자노래’, ‘칩노래’ 등 내용별로 재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제2집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제3집은 내용별로 분류한 후 첫 어절을 이용하여 노래의 제목을 삼고 있다. 해녀노래, 동요 편, 과부노래, 팔자노래, 타령 편, 시집살이 노래 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능상 혹은 내용상의 혼합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래마다 채집지역을 밝히고 있고, 난해한 어구가 나올 때마다 주석을 달고 있다. 제주어 표기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가능한 정확한 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12) 1956년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면서, 학생으로서 제주의 민요, 전설 등 본격적인 민속 조사에 착수하여 1960년 3월 7일 제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주도민요집>(1958), <제주도속담집>(1958), <제주도설화집>(1959), <제주도무가집>(1960) 등 향토 민속자료를 발굴 보존,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제주도지명의 유래집>(1960), <제주도신화>(1964) 발간, ‘제주민속박물관’을 개관(1964) 하였으며, 1966년 박물관 내에 ‘제주민속연구소’를 세우고 여기에서 <남국의 무속>(1966), <남국의 무가>(1968), <남국의 세시풍속>(1968), <남국의 수수께끼>(1972), <남국의 금기어연구>(1972), <남국의 민속놀이>(1975), <남국의 민담>(1976)을 발간하였으며, 그 후 <제주민속의 멋>(열화당, 1976), <남국의 무속서사시>(정음사, 1980) 등을 발간하는 등 제주민속의 학문적 토대를 위해 민속 제영역에 걸친 자료집 발간은 물론 제주 민속에 대한 81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91 7판) 참조.

<오돌또기>⑩는 이미 저자가 <제주도민요>1·2·3집에서 수집했던 1,500여수를 재정리하여 400수로 묶어 내놓은 개정판이다. 앞의 자료집에 비해 이 책에서는 우선 분류가 정연하고 자료집으로서의 본격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남국의 민요>⑪는 앞서 발간한 <오돌또기>에 제주도 민요의 개관을 덧붙이고, 書名을 달리해서(부제: 제주도민요집) 펴낸 자료집이다. 주석에 있어서 가창자의 설명을 중심 삼고 표준어로 옮겨서 독단을 지양하면서 각 노래의 수집시기, 수집지역, 제보자의 이력 등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어서 제주도 민요 연구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아울러 제주도 민요분류 일람표를 목차 앞에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은 우선 창자에 따라 男謠, 女謠, 男女謠로 대별한 다음 내용에 따라 男謠에는 오락가, 만가, 근로가, 女謠에는 자탄가, 정가, 경세가, 근로가, 男女謠에는 타령, 근로가, 동요, 토속가, 문답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민요곡으로 오돌또기, 너녕나녕, 땃돌노래 등 11편을 채보하여 악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4) 洪貞杓의 <濟州島 民謠 解説>⑫ 발간

이 자료집은 향토사학자인 홍정표가 기왕에 수집한 것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문화에 젖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130여수를 선택하여 노래마다 가능한 옳은 해석을 더듬고 올바른 감상을 해보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이 자료집의 이승녕 序를 보면 “氏는 순수 本島의 특색을 지닌 민요를 채취하고 육지 민요의 混入이나 贗案을 식별 배제하여 자료의 정선에 엄격하였으며, 그 방언에서 오는 난해에 대한 친절한 註釋과 가사 자체의 周邊作詞의 동기내용의 해설 등 여지껏 보여준 민요집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꾀하였다.”고 하였다. 자료집에 실린 민요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열되어 있으며, 그 노래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책의 앞 부분에 金國培가 編曲한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3편의 악보가 실려 있다. 이 자료집은 민요 사실과 어휘에 대한 주석, 민요의 현대어 표기, 민요에 대한 해설을 싣고 있다. 자료는 대부분 의미단락을 하나의 각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출처나 제보자, 조사지, 조사시기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노래의 기능적인 해설도 없다. 단지 내용중심

의 감상 위주가 되고 있어서 저자의 의도가 제주도 민요해설이란 제목처럼 민요의 감상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집 끝에 ‘제주도민요의 개설’을 싣고 있는데, 저자는 우리 대륙 한국에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오돌또기’가 있다고 하고, ‘아리랑’이 한국의 낭만이라면 ‘오돌또기’는 제주도의 낭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인 특성으로는 리듬이나 멜로디가 풍성한 맛은 없으나, 과장이 없고 솔직한 맛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제주도민들의 심성에 연유한다고 보고 있다.

이 자료집은 제주생활상을 반영한 민요 감상을 통해 의미단락별 내용과 그 속에 드러나는 과거 도민들의 정서를 살필 수 있는 해설서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5) 金榮敦의 <濟州島民謠研究(上)>(29) 발간

이 책은 제주도 민요를 전도 일원에 걸쳐서 직접 현장 조사하고 기능별로 분류를 하여 민요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자료집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그 이전까지 나온 흥정표와 진성기의 자료집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민요의 학문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송녕은 “<제주도민요연구(상)>의 간행은 자료개척의 면에서 특기할 만한 업적”, “제주도민요집성의 최고봉”이라고 序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유산은 그 고장 출신의 학자의 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뜨네기 장사’식의 散發的이고 斷續的인 육지학자들의 조사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인데… 제주도 민요는 김교수의 이 업적으로 영구히 그 原形을 남길 것이라고 하겠다.”고 하여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저자가 수집한 3,000여수 가운데 제주도 고유의 것이면서 對譯할 수 있는 민요만을 정선하여 1,403수를 수록하였으며, 수집 지역은 ‘제주도 민요 분포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주도 전역 57개 마을이다. 동요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고령자를 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수마다 노래의 끝에 제보자의 주소, 성별, 연령 및 성명을 기입하였다.

민요 분류는 제주도 민요의 특색에 입각하고 저자의 창안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 분류로서 노동요와, 타령, 동요로 삼분하고, 노동요는 다시 뱃돌방아노래,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망건노래, 양태노래, 밭밟는 노래, 풀베는 노래, 멀치후리는 노래, 기타 노동요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타령류는 옛타령, 잡요, 만가로, 동요는 동요, 자장가, 어희요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이 기능성 위주의 분류를 하고 있으며 뱃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동요의 경우는 그 노래 속에 나타나는 제재나 내용 중심으로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뱃돌방아노래인 경우 내용에 따라 뱃돌노래, 방아노래, 자립·근면의 노래, 팔자·한탄의 노래, 사랑과 원한의 노래, 시집살이 노래, 집안 노래, 경세 노래, 꿈의 노래, 신앙·풍토의 노래로 정리했다.

민요 각수마다 제주도 방언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해의 난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래 전체를 직역을 원칙으로 표준어화한 譯歌를 原歌의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기존의 자료집들이 단순한 자료 수록이나 피상적인 이해와 감상에 비하면 상당 부분이 구체적이고 정밀한 해석이 되어 있어 제주방언에 문외한일지라도 제주민요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자료집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책의 말미에 조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 분포도와 김국배 편곡의 제주도 민요곡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이 저서는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충실한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단, 민요 사설을 제재에 따라 의미 단락을 나누어 수록함으로써 한 제보자의 노래 한편이 여러 각편으로 나뉘어 분산 수록되어 있다. 그 결과 민요의 내용 파악에는 용이하지만, 민요 한편의 현장론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서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나. 국문학자들의 민요 연구

제주도 민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제주도 민요의 분류, 형식, 내용, 특색 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崔永日의 “濟州島의 民謠”(①)는 저자가 피난지인 제주도에서 수집한 민요를 정리한 글로 자료집의 성격이 짙다. 여기에는 오돌또기 1편, 검질매는 소리 1편, 시집살이 5편, 뱃돌가는 소리 70편이 의미단락

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김태준의 수집 소장하던 제주도의 민요 자료로, 학예사에서 1939년에 <조선민요선>으로 간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병기하여 싣고 있다. 요종으로는 방엿노래와 가랫노래 186수와 답전가 2수, 타곡가 7수, 제초가 10수, 해녀가 17수, 선가 15수, 매장가 15수, 자장가 3수 등이다. 간혹 채집지가 표기되기도 하며 맷돌노래의 대부분의 제보자는 조천의 宋相煥여사로 71세라고 적혀있다. 제주어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시택은 金思燁 외 <朝鮮民謠集成>에 실린 제주도 민요를 바탕으로 민요의 형식과 내용, 특색을 살피고 있다. 형식으로는 4.5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내용으로는 맷돌노래에서의 '이허도' 후렴이 민간에서는 슬픔으로 상징되고, 잠수가에 나타나는 노동의 고달픔, 방아노래의 자신에 대한 비애, 김매는 노래의 기능성, 밭밍기노래에서 제주도만의 농사법 특성 등을 밝히고 있다(②). 최학선은 해녀노래를 통해 해녀들의 물질 작업의 주된 기능과 해녀의 삶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했다(③, ⑨). 현용준은 민요에 나타난 도민의 생활을 가난과 싸워온 생활, 사랑과 눈물의 생활, 숙명과 체념의 생활로 구분하여 제주도 민요 각편을 감상하였고(⑫), 진성기는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에 보이는 여인상을 살피고 있는데, 자신의 저서 <오돌또기>에서 해녀노래에 속한 각편을 분석하여 제주도 여성의 근면성을 고찰하고 있다(⑬).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상)>이란 민요자료집 발간에 앞서 민요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된 민요를 바탕으로 문학적·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 민요에서의 비유법의 작용은 아주 넓고 깊어서 고려가요와 더불어 귀족문학이 따를 수 없는 함축하고 기발한 수사적 장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뛰어난 수사적인 기교를 지닌 노래들의 예를 들면서 분석하고 기록문학과 대조를 통해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비유의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⑭).

이어서 김영돈은 "제주도 민요론(1)-(4), 맷돌·방아노래편"을 <현대문학>에 연이어 발표하였다. 여기서 제주도 민요는 시적 정신과 언어구사의 우수성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맷돌·방아노래의 경우는 그 착상이나措辭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특히 맷돌·방아노래의 내용과 형식, 문학적인 가치를 밝히고 있다(⑮). 그는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어머니 사랑의 유형을 추출하고 내용을 분석

했으며(17), 더 나아가 제주도 민요에 드러나는 제주도민들의 꿈과 소망을 추출하기도 했는데, 제주도민들은 생활의 악조건으로 낭만적인 꿈은 없으나 양반과 서울에 대한 동경이 강한 점을 예를 들어 밝혀내고 있다.(18).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종류상 특색을 살펴서 제주도 민요에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부분이 여성요이며, 본토 민요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노래가 거의 없다. 정연요, 무용요, 동식물요 및 타령 등, 양지의 노래가 적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였다(20). 또한 제주도 민요의 특색으로 제주도가 처한 時空의 악조건에서 오는 비통성으로 인해 노동요가 많고,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요가 많다는 점을 각편들을 예로 들어 밝혀 놓고 있다(21).

또한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에서 80% 가깝게 노동요가 많다는 사실은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현실주의적인 공리성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패의 신념이 나타난 노래 각편을 정리하고 제주도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자연적, 역사적 환경을 분석하였다(22). 그는 제주도 민요의 분포를 전승자의 주소지별 통계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23), 민요를 통해 제주인들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찾아내고 있다(24,25). 그는 <제주도민요연구(상)> 발간 이후 제주도 민요의 문학적·민속학적인 특징을 규명하는 다양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다. 그 처음으로 민요와 다른 구비문학 장르간의 교혼 작용이 일어남을 제주민요와 속담을 통해 살피고 있다(31). 그리고 제주도 민요는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녀노래나 밭밍는 노래는 제주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34)

강무중은 '이어도'에 관한 일설과 님을 제재로 한 의미 단락을 분석하였고(16), 이봉준은 오돌또기가 육지에서 전파되어 고유의 제주민요로 승화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오돌또기의 뜻은 별뜻없는 흥겨운 노래하고 주장하였다(26). 임현도는 제주도 여성들의 탄식요를 고찰하여 과부의 노래, 첩노래, 시집살이 노래 등 셋으로 구분하고, 과부노래로서 '달풀이 12월가'를 감상하면서 강인한 제주도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첩노래를 감상하면서 남성의 취첩에 대한 반향, 가정의 경제적인 난관을 호구지책으로 첩살이하려는 의도, 전처와 첩의 비교, 첩과 자신의 비교 등을 제재로 한 노래들을 살폈다(27,30).

좌영조는 제주도민요의 형식적 특성으로서 4·5조를 4·3·2조의 3음보로 보

었다. 형태적 특징으로 단형시가가 함축성 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운율미를 유지하고 있고, 관용구와 상투적인 운의 戲作이 없고, 무기교적이며, 생활주변의 가시물을 인용하여 인상적인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상 특징으로는 여성 노동요가 거의 전부이며, 생활고가 여실히 반영된 단상의 悲歌가 대부분이고, 근면성과 자립정신에 기인된 여성의 비장한 신념이 강인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8).

임현도는 각 요종별로 거기에 반영된 도민의 생활 감정과 그 단면을 측정할 목적으로 타작노래, 해녀의 노래, 뱃돌노래의 각편을 예로 들어 유형별로 고찰하였다(29,30).

3.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민요 연구

이 시기는 1960년대에 이어 제주 출신 학자들에 의한 제주도 민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진성기와 김영돈에 의한 민속학적·문학적인 연구가 심화되었고, 제주대학교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개설되면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젊은 학자들이 민요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민요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나운영, 櫻井哲男, 조영배에 의한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도 민요 자료 수집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 의한 마을별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편>이 발간을 계기로 현장론적 방법에 의한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985년 제주설화집성(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발간을 기회로 제주어 표기법 시안이 마련되어 민요 사설 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이루어진 논저와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진성기, "오돌또기와 金福壽", <제주신문>(제주: 제주신문사, 1970), 2월 26일자.
- ② 김영돈, "제주도 민요와 石多", <한국민속학>3 (서울: 한국민속학회, 1970)

- ③ 羅運榮, "濟州島 民謠의 作曲學的 研究(I): 음악구조를 중심으로", <延世論叢>9(서울: 연대출판부, 1971), pp.103-134.
- ④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위상", <교육제주>18(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 ⑤ 櫻井哲男, "濟州島의 民俗音樂: 民俗音樂 研究方法的 試案", 東京藝術大學院 修士論文, 1973.
- ⑥ 김영돈, "제주민요",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서울: 문화재관리국, 1974).
- ⑦ 김영돈, "제주도의 노동요", <한국문화인류학>8(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 ⑧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한국언어문학>15(서울: 한국언어문학회, 1977)
- ⑨ 김영돈, "해녀노래와 해녀", <국어국문학논총>(이승녕선생 고회기념)(서울: 탐출판사, 1977)
- ⑩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지우 변시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78.
- ⑪ 김영돈, "민요와 타 구비문학과와의 교류: 제주도 민요와 속담을 중심으로", <논문집>10(제주: 제주대, 1979)
- ⑫ 任東權, <韓國民謠集(I)-(VI)>(서울: 집문당, 1961-1981)
- ⑬ 김영돈, "제주도민요 맺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82(서울: 국어국문학회, 1980)
- 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9-3)>(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83)
- ⑮ 김승태, "제주도 연자매와 그 민요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⑯ 김영돈, "민요의 기능과 사설", <한국문학 연구입문>(서울: 지식산업사, 1982)
- ⑰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2)
- ⑱ 김영돈, "해녀노래(1)", <북천 심여택교수화갑기념논총>(서울: 형설출판사, 1982)
- ⑲ 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분석", <민속어문론총(한희 최정여박사충수기념)>(대구: 계명대출판부, 1983)
- ⑳ 김영돈, "민요의 속성", <국문학론총(최동원 선생 화갑기념)>(서울: 삼영사,

1983)

- ㉑ 김영돈, "제주민요의 분류", <구비문학>(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4)
- ㉒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㉓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㉔ 뿌리깊은나무 편,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3: 제주도 민요>(서울: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1984)
- ㉕ 좌혜경, "제주 전승동요연구"(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㉖ 김영돈, "성음 민요의 실상", <논문집(인문학편)>20(제주: 제주대, 1985).
- ㉗ 羅運榮, "濟州島 民謠의 作曲學의 研究(2)", <전남대 논문집(예체능편)>29(광주: 전남대, 1984).
- ㉘ 左惠景, "濟州의 傳承 遊戲謠", <濟州島研究>2(서울: 제주도연구회, 1985)
- ㉙ 김영돈, "이어도와 제주도", <제연>(제주: 제주도문제연구회, 1985)
- ㉚ 김영돈,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8(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㉛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 <濟州島研究>2(서울: 제주도연구회, 1985)
- ㉜ 김영돈, "제주 민요에 드러난 돌", <시원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총>(서울: 교학사, 1986)
- ㉝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㉞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㉟ 김영돈, "해녀출가와 그 민요", <백록어문>3.4(제주: 제주대국어교육과, 1987)
- ㊱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20(서울: 한국민속학회, 1987)
- ㊲ 홍덕기,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구좌읍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㊳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 <한국민속학>20(서울: 민속학회, 1987)
- ㊴ 한기홍, "멀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론집>1(제주: 민요학회, 1988)
- ㊵ 오승식,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안덕면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1988)

- ④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부락지(1)-(4)>(제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1991)

가. 민요 조사 및 자료집 발간

(1) 임동권의 <韓國民謠集(Ⅰ)-(Ⅵ)>(⑫) 발간

문헌 자료와 저자가 조사한 자료를 합해 한국민요의 총집성을 목표로 10여년간 수집한 것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민요 분류는 주제, 창자, 기능과 재래의 명칭을 참조하고 있으며, 노래의 서두에 일련 번호를 명기하였다.

제주도 민요 자료는 1-5권에 걸쳐 두루 수록되어 있는데, 김영삼의 <제주민요집>(제민집), 임화의 <조선민요선>(민선), 진성기의 <제주도민요>(제민), 양홍식·오태용의 <제주향토기>(제향기),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민연) 등을 참고해서 편찬했다. 요종으로는 김매는 노래, 땃돌노래, 방아노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주도 노동요가 수집되어 있다. 본토의 노동요와 함께 실려있어서 본토의 민요와 제주도 민요를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노래는 제주지방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지역을 알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구연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론적 연구 자료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 책에 실린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좌혜경이 색인 작업을 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9-3)> 발간

<韓國口碑文學大系>는 전국적인 구비문학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학자들이 참여하여 현장론적 방법으로 조사한 설화, 민요, 무가를 수록한 구비문학 자료집이다. 책의 체계는 각 시군 개관에 이어 조사마을, 제보자, 구연된 민요, 설화, 무가 자료 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민요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도 구연 동기 및 구연 상황을 첨가하고, 조사자의 의견과 분위기 등은 [] 안에 명시함으로써

13) 좌혜경, "한국민요 지역별 자료색인", 민요학회, <민요론집>2(민속원, 1993), 429~613쪽.

조사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 설명란에는 제보자의 성격·습관·직업·노래를 배우게 된 동기 등까지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제보자의 생애력을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철저히 현장론적 방법으로 채록된 것만을 수집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민요를 비롯한 구비문학의 조사 및 채록 방법이 학문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보게 되었다¹⁴⁾는 데 있다. 이러한 민요 조사의 성과는 이 분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요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얻는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는 김영돈이 조사하였는데, 제주시 삼도동과 노형동, 서귀포시 중문동, 북제주군 구좌면 동김녕리, 애월면 광령3리,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안덕면 덕수리, 남원읍 하례리, 표선면 성읍리에서 조사된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요중별로 대부분의 제주도 민요가 망라되고 있어, 제주도 민요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 책에 실린 전체 민요자료는 좌혜경이 색인 작업을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23) 발간

<한국의 민속음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구전 민요의 악보화 작업의 결과물이다. 제주도 민요 채보 작업에는 한만영, 권오성, 이보형 등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고, 김영돈은 제주도 민요를 분류하여 제주도 민요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사설 전반을 정리했다. 특히 제주도 민요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 따른 일원화된 세부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위 분류에서 농요, 어요, 기타 노동요, 의식요의 기능적 분류와 기능적인 분류가 힘든 부녀요, 동요, 잡요 등은 따로 설정하여 악보를 제시하고 있다. 민요의 음악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악보 중심으로 채록되고, 사설의 경우는 일부만 소개되어 있어서 문학적 연구 자료로의 활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14) 박경수, 앞의 글, 329쪽.

15) 좌혜경, 앞의 글.

(4) 뿌리깊은나무의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3: 제주도 민요>(24) 편찬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3>은 브리태니커주식회사에서 음반 출판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보형의 해설과 사설, 그리고 악보가 채록되고 있다. 그리고 창자의 이력에 대한 해설도 가미되고 있다. 채록된 노래들은 오돌또기와 이야흥 타령, 서우젯소리, 김녕지역의 이여도사나, 멀치후리는소리, 성읍의 밧볼리기소리, 김매기소리(흥애기소리), 밧돌소리(ㄴ레는소리), 봉지가, 중타령, 오광산타령(산천초목), 잣은사랑가(삼마), 질군악, 계화타령, 신목사, 동풍가 등이다. 소리꾼으로는 김경화, 조을선, 이선옥, 현순옥, 김주옥, 양승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음악적 연구에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5) 탐라문화연구소의 <제주도부락지> 편찬

<제주도부락지(1)-(4)>는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과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제주도의 마을별로 조사한 학술조사 자료를 묶은 자료집이다. 민요만이 아니라 설화, 방언, 신앙 등이 조사 채록되어 있는데, 국어교육과의 <백록어문>, 국어국문학과와의 <국문학보>외에 <학술조사보고서>, <해촌생활조사보고서>에 실렸던 자료가 들어있다. 민요의 경우 마을 특성에 따라 조사할 항목을 정하여 노동요, 의식요, 동요를 중심으로 수록해오고 있다.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는 안덕면 대평리(1984), 한림읍 명월리(1984), 선산읍 온평리(1985), 남원읍 하례리(1987), 구좌읍 김녕리(1988) 자료가 수록되었으며, 2권에는 애월읍 남읍리(1978), 안덕면 덕수리(1980), 애월읍 광령리(1983), 애월읍 팍지리(1983), 3권에는 안덕면 창천리(1972), 구좌면 연평리(1973), 한경면 용수리(1974), 성산읍 오조리(1974), 대정읍 가파리(1974), 구좌읍 행원리(1985), 4권에는 서귀포시 중문동(1975), 표선면 성읍리(1977), 한림읍 귀덕리(1987), 구좌읍 동복리(1989), 한경면 고산리(1989)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의 영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아직 영인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으며, 시기별로 혹은 군단위별로 묶어서 편찬했다면 자료집이 더욱 체계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나. 민속학적·문학적 연구

우선 70년대 특기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는 김영돈이다. 그는 石多의 섬인 제주도에서 구전되는 민요에 드러나는 비유로서 돌의 의미를 규명하였고(②), 민요 연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방법론 확립, 전반적인 자료 수집, 인류학적·민속학적 분석 수행, 구비문학의 다른 장르와의 연관성 등을 밝히고 국문학과 연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④). 또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⑥) 발간 작업에 참여하여 구비전승의 민요 편에 덧붙이는 소리, ㄱ레ㄴ는 소리 등 18종의 민요를 조사하여 수록해 놓았다.

그후 김영돈은 제주도 노동요의 기능적 분류를 새롭게 시도하였다. 이 분류는 자료집 <제주도민요연구(상)>을 편찬할 때의 분류와는 다른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다양한 노동요들이 채록되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보인다. 여기서 제주도 노동요를 기능을 중심으로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관망요, 벌채요, 잡역요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의 요종상 특성, 노동요의 분포적 특성, 노동과 작업과의 관계, 노동요 사설에 반영된 도민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노동요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⑦). 그는 앞의 논문을 보완하여 제주도 민요의 특성으로 현실주의적 성격을 살폈으며(⑧), 해녀노래의 기능, 창곡, 가사의 관계도 살피고 있다(⑨).

김영돈은 제주도의 시·공적 배경으로 인한 제주도 민요와 민중생활의 관계를 고찰하여 제주도민의 현실주의적인 생활관 등을 분석했으며(⑩), 제주도 민요와 속담의 교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폈다(⑪). 그는 민요의 기능과 사설과의 관계, 기능의 종류, 민요사설의 주제, 그 분류, 동요의 처리, 민요연구 방법론과 앞으로의 과제 및 연구의 전망 등을 다루기도 했다(⑫). 그의 “제주도민요연구”(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제주도 민요의 위상에 터전해서 민요 분류를 시도하고, 여성노동요의 대표적인 땃돌·방아 노래와 해녀노래를 분석했다. 그리고 각편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민요 전반을 종류 단위로 한 다각적인 연구, 운율이나 문체 등 그 형식 분석, 가락과 사설의 상관성 분석, 구비문학과 교류실태, 기록문학 특히 국문학 작품과의 대비, 국내외 여러 지역 민요와의 비교 연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논문은 한국민요 연구사에 한 획을 그은 역작으로서 후학들의 제주

도 민요 연구에 있어서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후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 연구는 학위 논문에서 다뤄진 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첫 작업으로 맺돌·방아노래의 전승과 창법, 제재, 표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13), 이어서 해녀노래의 위상, 전승과 전승자 실태, 창법, 기능과 제재에 나타난 민중의식, 사설 내용과 해녀들의 생활 실태, 해녀노래의 표현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18). 또한 해녀노래를 그 기능에 따라 6가지 노래로 하위 분류를 하고 사설 내용을 분석하였다(19). 그는, 민요는 가락·사설·기능이 삼위일체로 구연되며, 민요의 범위에 창작민요와 동요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구비문학처럼 민요는 서민 공동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등 제주도 민요의 속성을 10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20). 이어서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 대해 지금까지 분류해온 방법을 정리하여 기능 위주로 상위 분류를 하고, 내용에 따라 하위 분류를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주도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로 분류하고, 유희의 기능을 지닌 무용요는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1).

또한 김영돈은 민속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정의현청 소재지이며 현재 민속마을인 성읍에서 전승되는 창민요를 분석하여 본토 창민요의 유입, 변이된 희귀한 노래임을 밝히고, 이어서 아웨기, 흥애기 등 희귀한 발매는 노래의 전승양상을 고찰하였다(26). 그리고 제주도 민요에 드러나는 이여도의 실상과 설화에 드러나는 이여도의 실상, 파랑도와와의 관계, 이여도 해석의 타당성 및 다른 지역의 경우를 비교하여 이여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으며(29), 한국민요 속에 나타난 제주민요의 모습을 조감하면서 고정옥이 설정한 제주도 민요의 특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0). 石多인 제주섬의 돌들을 단순한 소재로 다루거나, 비유의 대상으로서의 돌이 나타난 민요의 각편을 분석하였으며(32), 해녀들의 출가 지역 및 출가 양상, 해녀노래 가창 기원, 내용에 따른 사설 유형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35). 또한 오돌또기의 근원과 분포에 대한 해석, 가락이나 사설의 원형, 語意와 전설, 현전하는 오돌또기의 가락적 특징을 논하고 오돌또기의 정체를 나름대로 밝히기도 하였다(36).

한편, 제주대학교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개설로 제주도 민요를 연구한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제주도 민요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승태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제주도 연자매와 관련된 민요를 고찰하였는데, 제주도 연자매의 제작방법, 제주도 연자매의 분포, 연자매의 작업실태, 연자매의 구조 등을 분석한 후 노동요에서의 연자매 노래의 위상을 살폈다(15). 좌혜경은 제주 전승 동요를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어희요, 풍소요, 주술요, 자장가, 기타로 분류하고 그 형식상·내용상 특징을 살폈다(25). 또 좌혜경은 제주 지역에 전승되는 아동놀이와 그에 수반하는 유희요를 수집하고 분류한 후 사실 내용을 살폈는데 개인유희요는 개인적 정서 표출이 강한 반면에 집단적 유희요는 대사회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28).

강성균은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위상과 명칭, 전승과 분포, 창법, 기능과 사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김질매는 노래와 속담이 교류되고 있는 양상을 살폈다(33). 변성구는 巫俗 祭儀에서 불려지던 놀이무가인 서우젯소리가 주술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 민요화하는 과정과 현재 전승되는 서우젯소리의 유형과 사설 구성, 율격 및 내용 등을 분석하였고(34), 한기홍은 해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멀치 후리는 작업의 실태와 이와 관련된 노래가 전승되는 지역을 조사한 후 그 노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39).

이들은 학위 논문을 통해 민요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요종별 연구에 집중되고 있음은 제주도 민요 연구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민요 연구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협력적인 연구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7년 5월 16일 김영돈을 중심으로 민요학회를 창립¹⁶⁾하고 민요 현지 조사와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협력적인 민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다. 음악적 연구

제주도 민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는 나운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

16) 1987년 민요학회 창립 당시 회원으로는 김영돈, 이소라, 조영배, 강성균, 한승훈, 윤치부, 변성구, 좌혜경, 이성훈, 한기홍 등이다. 당시 남제주군 성읍리, 신풍리, 신천리, 서귀포시 대포동, 북제주군 덕천리, 신촌리 등 민요 현지조사와 3차에 걸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88년 학회지 <민요론집> 창간호를 발간하고 있다.

는 제주도 노동요와 창민요의 음악적 특성을 작곡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다(③). 또한 제주도 민요와 오끼나와 민요를 작곡학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후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상호간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⑦).

櫻井哲男은 해녀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밭 밟는 노래, 방아노래, 땃돌노래 등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하여 기본선율 구조, 리듬형, 기본 악곡 형식을 밝히고 있다(⑤).

조영배는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연구에서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는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을 라흐만(R.Lachmann)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음조직의 유형과 선율구조에서 종지 형태, 선율형을 분석하였다(②). 또한 노동양태, 노동 동작구조, 노동 동작속도 등에 입각하여 노동요의 분류를 시도하고, 아울러 그 음악적인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를 살폈는데, 제주도 민요는 감정기원적 선율을 지니고 선율 윤곽의 완급은 노동양태와 관련된다라고 보았다(③). 그리고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인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신접, 신비력, 치병제의, 정화 등의 기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⑧).

홍덕기는 구좌읍 노동요를 중심으로 선율을 분석하여 4가지의 구성음의 틀을 추출한 후 5음계 선법의 조건들과 음역을 살폈으며(③⑦), 오승식은 남제주군 안덕면 노동요를 대상으로 선율의 구조, 리듬의 형태를 중심으로 따비질소리, 밭 불리는소리, 방앗돌굴리는 소리 등 10여편의 민요를 분석하였다(④).

4.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민요 연구

1990년대 이후 제주도 민요 연구는 1987년에 결성된 '민요학회'의 활동이 결실을 거두면서 <민요론집>을 발간을 계기로 민요학회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김영돈, 조영배, 좌혜경, 윤치부, 김영돈에 의해 민요 연구 성과가 저술로 나타났고, 한승훈, 변성구, 한기홍, 양영자 등이 민요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MBC 문화방송에 의한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의 발간과 민요곡 음반이 CD로 제작되어 나오으로써 풍성한 연구자료

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논저가 발표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문학·음악적 연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시기라고 할만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제주도 민요 관련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와 다른 학문분야간의 학문적 연계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돈이 2001년 별세함에 따라 제주도 민요 연구는 제2세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라고도 하겠다.

1990년대에는 어느 시기보다도 민요 관련 저서가 많이 발간되고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민요학회의 민요론집이 6호까지 간행되면서 육지부와 제주출신 학자들간의 민요학 관련 학술 정보 교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종합적인 연구에는 아직 방법론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002년 현재까지 발표된 논저와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영돈, "제주도지역의 구비문학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구비문학>9(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② 강경수,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제주시의 노동요를 중심으로"(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③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④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 통속민요 연구편>(제주: 신아문화사, 1991)
- ⑤ 좌혜경, "제주도 민요의 서술체 구성에 관한 고찰", <耽羅文化>11(제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pp.17-41.
- ⑥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서울: 예술, 1992)
- ⑦ 좌혜경, "제주도 민요의 전승변이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12(제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pp. 17-40.
- ⑧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연구"(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⑨ 김인규, "제주민요, 서우젓소리의 분석적연구",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제주: 제주대, 1992)
- ⑩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서울: 문화방송, 1992)
- ⑪ 좌혜경, "제주민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22(제주: 제주문인협회, 1992), pp.162-72.

- ⑫ 좌혜경, "제주도 민요사설에 드러난 통합성", <제주도 연구>9(서울: 제주도연구회, 1992), pp.101-21.
- ⑬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현용준박사회잡논총)>(제주: 제주문화, 1992), 169-194.
- ⑭ 윤치부, "제주민요의 낙원상설의 모티브", <제주도언어민속론총>(제주: 제주문화, 1992), pp.215-240.
- ⑮ 박상규, "제주무가와 민요에 나타난 어휘의 성격고", <제주도언어민속론총>(제주: 제주문화, 1992), pp.99-116.
- ⑯ 櫻井哲男, 좌혜경역, "소리의 전개: 제주도 민속음악개설", <제주도언어민속론총>(제주: 제주문화, 1992), pp. 613-24.
- ⑰ 김영돈, "제주민요의 모습과 빛깔", <민요론집>2(제주: 민요학회, 1993), pp.55-75.
- ⑱ 문무병, "제주 민요에 나타난 무가", <민요론집>2(제주: 민요학회, 1993), pp.111-144.
- ⑲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 <민요론집>2(제주: 민요학회, 1993), pp.403-428.
- ⑳ 변성구, "제주 민요의 후렴", <민요론집>2(제주: 민요학회, 1993), pp.267-294.
- ㉑ 좌혜경, "민요의 명칭고", <제주문화연구>(현지 김영돈박사 화갑기념 논문집)>(제주: 제주문화, 1993), pp. 21-39.
- ㉒ 김대행, "제주 노동요의 민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제주: 제주문화, 1993), pp.41-61.
- ㉓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의의: 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연구>(제주: 제주문화, 1993), pp.63-80.
- ㉔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유형 분석", <제주문화연구>(제주: 제주문화, 1993), pp.81-134.
- ㉕ 강영봉, "제주민요의 몇 어휘", <제주문화연구>(제주: 제주문화, 1993), pp.355-364.
- ㉖ 좌혜경, <제주전승동요>(서울: 집문당, 1993)
- ㉗ 김영돈 편저, <제주의 민요>(서울: 신아문화사, 1993)
- ㉘ 황혜령, "민요선율의 변이양상에 대한 일 고찰: 제주 성읍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②9 金大行, "濟州民謠의 遮斷構造와 그 文化的 意味", <민요론집>3(제주: 민요학회, 1994)
- ③0 좌혜경, "高橋亨著, 濟州島の民謠, 歴史와 社會學的 觀點에서 살핀 濟州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刊, 1968.) 解題, <탐라문화>(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 ③1 좌혜경, "민요자료의 사회, 역사적 측면의 해석, <한국민요학>2(서울: 한국민요학회, 1994)
- ③2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해제", <민요론집>3(제주: 민요학회, 1994)
- ③3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론집>3(제주: 민요학회, 1994)
- ③4 한승훈, "상천민요기행", <민요론집>3(제주: 민요학회, 1994)
- ③5 고재환, "濟州島 俗談과 民謠謠詞의 相關性", <민요론집>4(제주: 민요학회, 1995)
- ③6 김영돈, "제주 민요의 문학성", <민요론집>4(제주: 민요학회, 1995)
- ③7 김종식, "시집살이요 비교연구", <민요론집>4(제주: 민요학회, 1995)
- ③8 변성구, "말뚝는 노래의 演行方式과 辭說", <민요론집>4(제주: 민요학회, 1995)
- ③9 좌혜경, "민요자료 조사의 과제와 방법". <백록어문>11(제주: 백록어문학회, 1995)
- ④0 제주도, <제주의 민속>3(제주도, 1995)
- ④1 좌혜경편,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5)
- ④2 좌혜경, "성님성님 시집살이 어떻습데가?",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민속학>(민속학회, 1995)
- ④3 좌혜경, <民謠詩學研究>(국학자료원, 1996)
- ④4 김영돈, "민요와 속담의 교류", <민요론집>5(제주: 민요학회, 1997)
- ④5 좌혜경, "제주민요개관", <임석재 한국민요집(연구편)>(집문당, 1997)
- ④6 좌혜경, "민요의 話者運用과 詩의效果",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1997)
- ④7 좌혜경,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의 세계인식", <백록어문>13(제주: 백록어문학회, 1997)
- ④8 櫻井哲男, 좌혜경역, "제주도 민속음악의 현대적 변용", <민요론집>5(제주: 민요학회, 1997)
- ④9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⑤ 좌혜경, <한국·제주·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푸른사상, 2000)

⑤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 (민속원, 2002)

가. 민요 조사 및 자료집 발간

(1)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발간

<한국민요대전> 발간은 한국의 구전민요를 채록하여 방송에 활용하는 한편 각계에 보급함으로써 소멸해 가는 민요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 책은 음반에 수록된 제주도 민요의 사설과 악보, 가창자의 말에 관한 해설 등을 결들인 총체론적인 민요 자료집이라 할만하다. 음반에 수록된 제주도 민요 171곡은 문화방송 조사팀이 1989년에 현지 녹음한 500여곡과 1991년에 추가 녹음한 20여곡, 그리고 제주 MBC의 한승훈 PD가 소장하고 있는 녹음 자료 중에서 선곡된 것이다. 선곡의 기준은 음악과 문학면에서 원형에 가까운 것을 택하고 지역성을 고려했으며, 지역 또는 가창자에 따른 변이곡들도 다양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였다. 명칭표기는 현지 명칭을 앞세우고 표준어를 괄호 속에, 현지 명칭이 많을 때는 보편적인 것을 택했다. 수집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역으로 대부분의 제주도 민요가 망라되고 있으며, 조사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이기에 신뢰성이 높은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지취재에 제주팀으로는 민요학회 김영돈, 문무병, 고광민, 한승훈, 변성구, 한기홍, 양영자가 참여했으며, 해설원고 집필에는 김영돈(제주 민요의 배경과 분류), 한승훈(제주지역 민요의 특징, 마을·가창자·곡해설), 이정란(제주민요의 음악적 특징) 등이 참여했고, 음악 선곡은 한승훈, 최상일 PD가 담당했다. 채록 정리된 사설과 악보, 해설이 결들여 있어 제주도 민요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발매품 한정판으로 발간, 제작됨으로써 자료를 널리 보급하지 못하는 점, 음반에 수록된 곡들에 대해 가치 부여의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좌혜경의 <제주전승동요>(26) 발간

이 책은 좌혜경이 제주지역에 전승되는 동요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한 저서로 자료 편과 이론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편에는 동물요, 식물요, 천체기상요, 풍소요, 어희요, 자장가, 유희요, 기타요, 사회풍자요로 분류하여 동요를 수록하였다. 각 노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만 보아도 노래의 내용이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론편에서는 제주도 전승동요의 분류 체계를 밝힌 후 제주도 전승동요의 특성을 형식,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3) 김영돈 편저 <제주의 민요>(27) 발간

<제주의 민요>는 민요 해설편과 자료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요 해설에 있어서는 민요의 실상 파악과 그 배경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 제주 민요의 특성, 제주 민요의 분류, 민요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 이여도를 소재로 한 민요를 분석하고, 이어서 오돌또기, 산천초목, 멸치후리는 노래, 방앗돌굴리는 노래, 해녀노래, 제주동요를 고찰하고 있다. 자료 편은 제주민요를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한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있다. 가능한 한 특이한 요종을 우선 선정하고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노래를 실으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노동요인 경우는 현지 요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주어의 표기법에 따라 채록을 하고 가창 현장을 중시하고 있다. 각 시·군 자료의 전체적인 자료조망을 위해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있다.

(4) 제주도의 <제주의 민속·3>(40) 발간

제주도청에서 1995년에 발간한 자료집이다. 설화, 민요, 속담 중에서 김영돈과 좌혜경이 민요를 담당했다. 김영돈은 제주민의 삶과 민요, 제주민요 전승의 실재를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주민요의 문학성을 밝혔으며, 좌혜경은 문헌해제 작업을 바탕으로 한 제주민요 연구사와 그리고 기존의 분류 작업을 바탕으로 제주민요의 분류, 그리고 기존의 제주도 민요를 창자별 구분에 따른 민요유형을 정리했다. 또 사설에 나타난 제주민요의 변이성을 통시적·공시적·기능적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5) 좌혜경의 <제주섬의 노래>(41) 발간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謡>에 수록된 민요를 번역한 자료집으로 제주도 민요의 문헌해제를 특별부록에 싣고 있다. 특히 원 자료에 제주도 방언 표기가 부실한 경우 방언을 현지의 실정에 맞게 교정을 하였다. 원 자료는 1930년대에 조사된 것이어서 1960년대나 혹은 현존의 자료들의 원형을 재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6) 윤치부의 <제주전래동요사전>(49) 발간

이 자료집은 저자가 현장 교사들이 향토교육 자료로 이용되거나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유산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뜻을 품고 제주민요와 관계된 모든 문헌에 산재된 전래동요 1,200편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전래동요를 기능에 따라 유희요, 주술요, 노동요로 대별하였으며, 노래마다 고유 번호와 출전, 방언 어휘에 대한 주석을 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나. 민요 연구 논저 발간

(1) 좌혜경의 <民謠詩學研究>(43) 발간

이 저서는 저자가 1992년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펴낸 것으로 민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수집·정리의 차원을 넘어 구조시학적 관점에서 학문체계의 정립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장르의 특성과 연구방법을 통해 민요가 지닌 시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밝히고, 의미구성론, 유형구조론, 서술론, 전승변이론을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민요자료 조사와 민요의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제3부에서는 기존의 한국민요 연구논저를 해제하여 싣고 있다.

(2) 좌혜경의 <한국·제주·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50) 발간

이 책은 저자가 평소의 연구 논문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문부성 과학연구비보조금 조사에 참여하면서 오끼나와 및 아마미 민요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함께 신고 있다. 제1편 한국민요에서는 한국민요의 역사, 민요의 화자 운용과 시적효과, 비기능적인 노래의 성격과 분류 시고, 유희 발달 중심에서 본 전승동요를, 2편 제주민요에서는 제주여성 민요,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의 인식 체계, 해녀민속과 해녀들의 민요를, 3편 오키나와 민요에서는 야부 하치가츠오도리 부시의 특성, 강강술래와 奄美 小湊의 八月踊, 奄美 小湊 민요 考, 제4편 신화와 굿의례에서는 조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제주신화에 드러난 '할망'의 신적 역할, 오키나와의 海神祭와 제주도의 영등굿이 실려 있다. 저자가 그 동안 민요와 민속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집대성된 자료로 민요와 민속 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일본의 민속 간에 비교 연구를 시도한 것은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3)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하)>(이론편)(⑤) 발간

이 책은 저자의 펴낸 <제주도민요연구(상)>(자료편)이 나온 지 어언 37년만의 이루어낸 민요 연구 생애의 역작이자 제주도 민요 연구의 결정체로서 후학들에게 민요 연구의 교과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저자가 세상을 뜨기 전 2001년 8월 15일 일러두기를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완수했으나, 책의 발간을 보지는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열정을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는 제주도 민요를 이해하는 데 총괄적인 단행본이 없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마지막 소명의식을 앞세워 이 책을 펴낸다고 발간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을 꾸미면서 민요 전공자들이 활용할 만한 학술적 깊이를 바탕에 깔면서도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했으며, 향토문화 교육에도 소중하게 이바지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일러두기에서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민요의 의의와 한국민요의 연구사를 제시한 후 2장부터 4장까지는 제주민요의 배경·특징·분류를, 5장부터 7장까지는 밭돌·방아노래, 해녀노래, 오돌또기 기타를, 8장부터 14장까지는 문학적·민속학적 연구 결과물로서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어머니 사랑·돌·서울·도민의식을 다루고, 이어서 제주민요와 속담과의 교류, 제주민요의 문학성, 제주민요에 드러난 이어도를 신고 있다.

다. 민속학적·문학적 연구

김영돈은 <韓國口碑文學大系> 제주도편 자료 조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제주어 표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주석 기입, 창법에 따른 민요사설의 표기문제와 구비문학대계 해제 문제 등을 거론하고 <한국설화대계>, <한국민요대계>, <한국무가대계>의 간행을 제안했다(①). 제주도 노동요의 지역적 분포 양상과 의식요의 전승과 무용·유희요의 희귀성을 살핀 다음 제주도 민요의 빼어난 문학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각 요종별에 따르는 분포, 전승실태, 전승자, 창법, 기능, 제재, 내용, 표현 등의 다각적인 고찰과 국내외의 민요 비교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였다(⑦). 이 논문은 그가 제주도 민요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론적 고찰이란 성격을 띠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또 맷돌노래와 방아노래를 대상으로 문학성을 고찰하여 비유의 우수성, 반복과 점층적인 강조, 직서적인 표현, 의문형 종결어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차용, 어휘의 연상작용 등을 통해 민요의 문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며(⑩), 민요와 타구비문학간의 교류 중요성도 강조했다(④).

좌혜경은 기능요의 사실 성격을 기능성의 유무, 서정성, 교술성, 서사성에 따라 구분하고, 평노래와 맷돌노래를 통해 서술체의 구성과정을 살폈다(⑤). 그리고 통시적·공시적·기능적 측면에서 제주도 민요의 전승 변이에 관해서 논의를 시도했다(⑦). 이와 함께 제주작가들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그 작품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제주민요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고찰하였으며(⑪), 요종별 상호교섭의 시각에서 제주도 민요에 드러나는 통합성을 분석하고, 두 가지 유형적 특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⑫) 또한 민요에 붙여지는 ‘-노래’, ‘-소리’, ‘-가’, ‘-요’ 등 명칭 설정은 그 노래의 기능성, 지역성, 후렴, 음악적인 성격에 따라 이루어짐을 실제 구연되는 양상을 통해 고찰하기도 하였다(⑫).

좌혜경은 외국 학자의 민요 연구에 대한 번역과 해제 작업도 하고 있는데, “高橋亨 著, 濟州島の民謡, 歴史와 社會學的 觀點에서 살핀 濟州民謡”(⑩)가 그것이다. 이 글은 高橋亨 著, <濟州島の民謡>를 분석하고 해제한 글이다. 또 그는 “민요자료의 사회, 역사적 측면의 해석”(⑪)이란 제목으로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謡> 중에서 제4장 맷돌·방아노래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

초기 연구(192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시대를 구분하여 제주 민요를 연구한 문헌 자료를 해제하고 있다(32). 그는 학술조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조사의 가치와 수집과 방법, 조사의 실제, 제주 민요 표기의 문제, 자료의 효율적 이용 등 백록어문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술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하기도 하였다(39).

좌혜경은 임석재가 수집한 한국민요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민요를 개관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과, 민요의 배경을 살핀 후 제주도 민요를 분류하고 각 요종마다 개설적인 설명을 덧붙였으며(45), 노래유형에 따른 화자유형을 단순과 복합화자로 구분하고, 여탄요에서 화자운용과 서사요를 중심으로 한 운용의 방법을 살폈다(46). 또한 제주민요 맺돌·방아노래 사설들을 분석하여 분류된 제재에 따라 삶의 제 현상과 인식론적인 가치들을 분석하였다(47).

민요학회는 민요와 민속을 연구하는 제주 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요론집>창간호(집문당, 1988)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창간호에는 기존의 민요 연구물을 수정 보완하거나, 회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93년에 발간된 2호부터는 2002년 6호까지 회원들의 새로운 연구물을 게재함으로써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래 소개되는 많은 연구 논문들은 <민요론집>에 실린 것들이다.

강문유는 제주도 상여노래의 배경, 사설 유형, 기능과 가창형식, 주제를 중심으로 민속학·문학적인 관점에서 상여노래를 고찰하였으며(3), 양영자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민요 중에서 시집살이를 제재로 한 민요를 분석했는데, 이런 제재는 노동요 중 맺돌·방아노래, 양태노래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자주 나타나며, 타령이나 잡가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8). 윤치부는 제주도는 절해고도라는 자연적 의미에서 변방이라는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강화되는 낙원 상실의 지역임을 민요를 통해 살펴보았고(14), 문무병은 무가의 사설이 민요의 사설로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로 서우젯소리를 들어 사설 교류관계를 분석하였다(18).

한승훈은 라디오 방송을 위해 직접 발로 뚫 현장조사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를 분석하여 사데소리의 분포권을 7개 권

역으로 나누었으며(19), 또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의 사회적 배경과 소리꾼 박정환의 별채요를 분석하였다(24). 변성구는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후렴을 비교 분석하여 고정체계, 준고정체계, 비고정체계의 3가지로 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후렴의 기능과 율격을 고찰하였으며(20),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해녀노래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사설을 분석하였는데, 기능성에 따라 해녀작업 출발, 출가과정, 출가생활로, 서정성에 따라 신세한탄, 사랑, 인생무상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밝혔다(24). 또한 제주도 특유의 노래인 발뺌는 노래가 연행되는 조농사 관행을 살핀 후, 이 노래의 연행 방식과 사설구조를 함께 살폈다(38). 한기홍은 조천이라는 특정지역의 민요를 전승집단에 따라 분석하여 관변층인 기녀들이 창민요를 전승시키고, 노동집단인 농민들이 노동요를 전승시켜왔다는 점을 고찰하였으며(33), 김종식은 濟州와 慶北, 全南 지방의 시집살이 노래를 비교하여 시집살이 노래의 유형과 문체 의식을 고찰하였다(37).

민요 전공이 아닌 국문학자들의 민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김대행은 노래방식 중에서 교창 형식의 특이성 및 노래 자체를 화제로 삼고 있는 화제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제주도 민요의 유형적 분포와 노래의 인식, 그 문학적 성격을 다루었고(13), 또한 노동요의 노래 동기, 제주 노동요의 창법의 특이성, 특히 교환창의 네 가지 유형-이어받기, 반복하기, 각각하기, 논평하기-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등을 밝히고 있다(22). 또 그는 “濟州民謠의 遮斷構造와 그 文化的 意味”에서 제주도 노동요 교환창 가운데 논평하기를 예로 들어 遮斷構造가 갖는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29). 박상규는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어휘 중 큰어기덜의 ‘덜’과 ‘심방’을 중심으로 언어학적인 방법에 따라 민요의 역사와 시대성을 밝히고 있다(15). 허남춘, 제주 시집살이 노래가 기능변환과 가창방식의 변화에 따라 서정성을 띤 노래로 불려지는 점을 들어 시집살이요의 서사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기존의 시집살이 노래 유형이 서사민요나 혹은 서정적 서사라는 장르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23). 강영봉은 김영돈의 <제주도민요 연구(상)>에 수록된 민요 중에서 未詳으로 된 어휘, 물음표가 붙은 어휘, 각주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의미를 어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25). 고재환은 제주도 속담 1,000여 편과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에 수록된 민요 노랫말을 대비해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형태적인

면에서는 同一型과 類似型, 變異型으로 나타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人情, 生計, 理事로 나타난다고 해명하였다(35).

라. 음악적 연구

강경수는 제주시 노동요를 중심으로 각 요종마다 가창방법, 구성음과 음계, 종지음과 음조직, 리듬의 요소와 선율선을 분석하였다(2). 조영배의 <제주도 민속음악: 토속민요 연구편>(4)은 제주도 토속민요의 실태와 일반적인 성격을 개관하고 이들의 연행적인 요소와 음악적 요소, 사실적 요소를 분석하였고, <제주도 노동요 연구>(6)에서는 제주도의 노동요를 수집하고 음악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지금까지 저자의 제주도 민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를 집대성한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1부 제주도 노동요 개관 편에서는 '토속민요란 무엇인가'란 논제 하에 민요와 토속민요와의 관계, 토속민요의 개념·특성·구분·의의 등을 조명한 다음 제주도 토속민요의 형성 배경·성격·분류·자료문제·연구실태 등을, 그리고 노동요의 각 하위 요종별로 음악적인 분석과 사설의 구조 등을 살폈다. 2부 제주도 노동요의 연구편에서는 제주도의 노동요의 음악적·총체론적·상호관련적·기능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끝에는 제주도 노동요의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규는 서우젯소리의 선율적 특성을 가로 정간보의 기보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고찰하였으며(9), 櫻井哲男은 민속음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역사적 전개, 즉 변용의 예로 서우젯소리, 오돌또기 등을, 지역적 전개, 즉 변이의 예로 김매는 노래, 밭밍는 노래, 타작노래 등을 지적하였다(16). 황혜령은 제주도 창민요의 변이양상을 고찰하여 제주도 성읍에서 전승되는 창민요를 육지부 민요의 변이라는 관점에서 경서도 민요와 비교하여 영향관계를 살피고 있다. 특히 오돌또기는 경기지방의 오돌독과 유사한데, 이것은 제주에서 육지부로 넘어간 형태가 아닐까 하고 가정하였다(28). 좌혜경이 번역한 櫻井哲男의 제주도 민속음악의 현대적 변용(48)은 제주도 민속음악의 현대적 변용의 양상을 음악·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III. 결 론

본고는 지금까지 제주도 민요와 관련된 논저와 자료집을 중심으로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를 시대별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개별 논문까지 포함하여 주요 저서와 함께 검토하다 보니 깊이 있는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나열에 그친 감이 있고, 검토 결과를 충분히 논의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그나마 선행 연구로서 좌혜경의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

제주도 민요 연구 성과를 간략히 더듬어 본다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는 일본인 학자 高橋亨에 의해 제주도 민요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것은 해방 직후 우리 학자로 하여금 제주도 민요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 50년대 말부터 제주도 민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자료집의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성기, 김영돈의 자료가 본격적인 민요 연구 시대를 여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김영돈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요연구(상)>을 발간한 이후 반세기 동안 제주도 민요 연구에 매진하면서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도편),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과 같은 국가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참여함은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해 민요학회를 창설하고 민요 현지조사와 학술 세미나 개최, <민요론집> 발간 등을 올곧게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민요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물을 총결산하여 <제주도민요연구(하)>(이론편)을 민요학계에 남겨줌으로써 민요학의 정립에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제주대학교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개설로 민요 관련 학위 논문이 나오면서 민요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좌혜경은 <제주전승동요>, <민요시학연구>,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등의 발간을 통해 민요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 윤치부의 <제주전래동요사전>도 동요 자료의 집대성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주도 민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는 조영배의 <제주도노동요연구>를 통해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수많은

은 논저가 발간되고 다수 동학들의 개별 논문들이 쌓임으로써 제주도 민요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제주도 민요 연구가 제주학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요학,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제주도 민요 연구에 동참하는 자가 많아져야 하겠다. 지금 비록 적은 수이지만 민요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울러 대학 학부학생들이 민요 연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 현지 민요조사 활동, 민요 공연단체와의 연합행사 등도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민속학적·문학적·음악적 측면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쌓여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도 민요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것은 학문적 성과의 축적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민요의 시가문학적·음악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무형의 관광자산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요즘 인터넷 학습 시대에 민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 보면 제주도 민요가 소개되는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민요에 대한 해설이 빈약하고 심지어는 민요 사설 표기가 제주 방언 사전에 없는 기이한 어휘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민요학회를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사족일지 모르지만 어학전공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확정하여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집들을 찾아보면 민요 사설 표기에 있어서 일정한 표기법이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 민요 사설을 곡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과거 잘못 표기된 자료의 처리 문제도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민요 연구자들이 많아진다면 연구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민요 연구가 지금까지 민속·문학·음악적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지리학·사회학·인류학·어학·정신분석학 등 인접학문과 연계한 연구,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제주도 민요 연구는 또 한 단계 발전하리라 여겨진다. 제주도 민요 연구에 많은 동학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는 머지 않은 장래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 <제주도민요연구(하)> 도서출판 민속원, 2002.
 민요학회 편, <민요론집>(3호), 제주문화, 1994
 ———, <민요론집>(4호, 6호), 도서출판 민속원, 1995, 2002.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랑, 2000.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민속원, 1999.
 조영배, <제주도노동요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도민요해설집)>, 제주민속연구소, 1968.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9-1,9-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83.

이 논문은 2002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